어린이 책꽂이

▲임금님의 집, 창덕궁=궁궐의 본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창덕궁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창덕궁의 주요 건물들을 중심으로 그 전각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아기곰의 첫번째 크리스마스=아기곰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내용이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그려져 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준다.

〈주니어랜덤·9천원〉

▲쑤어쓰데이 캄보디아, 내 이름은 쏘카=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책. 캄보디아 다문화 집안에서 태어난 은지를 통해 다문화 집안 아이들이 겪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한솔수북·1만1천원〉

▲넌 커서 뭐 할거야?=어린이를 위한 미래 직업 가이드북으로 100가지 직업의 세계가 소개돼 있다. 직업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어떤 적성이 필요하고 미래 전망은 어떤지 정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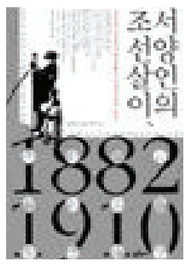
〈서울문화사·1만원〉

▲숲속의 크리스마스=불빛이라곤 할아버지가 밝힌 작은 초롱불과 하늘을 수놓은 별빛이 전부인 어느 깊은 숲속 크리스마스 이브를 담은 그림책. 숲지기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숲의 일부를 나눠주는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물상자·8천500원〉

구한말 '푸른 눈 외국인'의 일상

서양인의 조선살이… 정성화·로버트 네프 지음



구한말 조선에 들어온 서양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성화 명지대 사학과 교수와 한국학 자료 수집가인 로버트 네프가 함께 쓴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기간에 주로 서울에 거주했던 서양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그들이 쓴 자서전과 여행기는 물론 해외에서 발행됐던 신문 그리고 각종 문헌들을 통해 당시의 일상을 생생하게 추적해 냈다.

구한말 조선에는 의외로 다양한 국적의 서양인들이 체류했다. 당시 서양인들은 선교사, 외교관 전기기술자, 때로는 금광이 넘쳐난다는 정보에 흘려 노다지를 꿈꾸며 미지의 땅 조선으로 흘러들었다. 이들은 서울 정동에 서양인촌을 형성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일구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고 불결한 시궁창을 현대식 수로로 개선하는 등 주변을 정비하여 자신들의 안식처를 가꿨다.

책에는 한국인들과 서양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사진 자료들도 함께 실려 있다. 사진은 1913년 미국인이 소유한 운산지역 금광회사의 한 자동차. 〈푸른역사 제공〉

하지만 서양인들은 서울의 비싼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마저 귀해 식료품이며 난방용 석탄 등을 구하지 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본국으로 주문해야만 했다. 행여 병이라도 나면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없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의료여행을 떠나야 했다.

이처럼 그들 역시 낯선 땅에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며 어려움을 감내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책은 또 구한말 서양인의 황당한(?) 이야기도 다수 소개하고 있다. 구한말 입국자들 중에는 선교사나 외교관처럼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 인종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격연습을 한다며 한국인의 상투를 쏘아 맞추는 등의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협잡꾼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양 있는 집단으로 여겨졌던 외교관 사회에서도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1886년 주한 미국공사로 발령받은 윌리엄 파커는 술고래로 '그릇을 깨뜨리고 마루에서 소변을 보는 인물'임이 드러나 3개월 만에 짐을 싸야 했다. 독일 외교관 페르디난트 크리엔은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소문 때문에 1888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왕따'를 당했다.

황당한 기록은 이 뿐만이 아니다. 1903년 11월 29일 미국의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 신문에는 에밀리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고종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고 기사는 완전 오보였지만 미국에서는 1912년까지 이 여성의 이야기가 떠돌았다.

한편 서양인들은 서구 문물 도입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도 했다. 틀니, 맥주, 스케이트 같은 일상용품뿐 아니라 자전거, 기차, 항공기, 영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물을 소개했고, 이를 접한 한국인들의 놀라움과 충격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탄 서양인을 본 한국인들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놀랐고, 처음 등장한 자동차가 거리를 내달리며 내는 굉음소리에 혼비백산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우주인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이렇듯 구한말 서양인과 한국인들은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때로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낯선 공존을 이루었다. 또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별별 사건이 다 있었던 것이다.

〈푸른역사·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사들이 전하는 인생 지침서

… 희망 미래 설계도 이어령 교수 등 강연집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 명사들의 강연을 묶은 '글로벌 시대의 희망 설계도'가 나왔다.

경원대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진행된 '21세기 지성학' 강좌 시리즈를 책으로 묶은 것으로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인생 지침이다.

이어령 교수는 '글로벌 시대를 사는 문화인의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 강의했고, 소설가 김훈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언어의 힘'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탤런트 이순재가 자신의 연기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인이 갖춰야할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밖에 김언호(한길사 사장), 김종갑(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홍기화(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박해춘(전 우리은행장) 등 문화·경제계 인사들의 강연도 만날 수 있다. 시리즈 1편 '글로벌 시대의 한국, 한국인'에는 정운찬·한승헌·진대제등의 글이 실렸다. 〈아카넷·1만 6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살찌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 제시

… 왜 과식하는가 브라이언 완싱크 지음

우리는 왜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걸까. 음식심리학자 브라이언 완싱크(코넬대 식품 브랜드 연구소)가 펴낸 '나는 왜 과식하는가'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하는 숨은 단서들을 찾아내고, 올바른 식습관을 제시한 책이다.

수천명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과식의 원인을 규명해낸 저자는 '배고픔'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와 배치, 포장, 화려한 메뉴판 등 '주위 환경'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고 살찐다고 주장한다.

또 버팔로 윙을 마음껏 먹게 할 경우 웨이트리스가 뼈를 치우도록 한 테이블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 가까이 더 먹는 실험을 통해 '먹는 것을 실제로 보지 않는 한 과식하기 쉽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고칼로리 음식은 작은 접시에 담는다, 포장 그대로 펼쳐 놓고 먹지 않는다 등은 저자가 권하는 식습관이다. 〈황금가지·1만 2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무크타르 마이 '고백'

만약에 이 책이 고백서가 아니라, 소설이라면 독자들은 처음 몇 장을 읽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열두 살짜리 남동생이 다른 부족의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죄가 되어, 그 죗값을 누나가 다른 부족들에게 윤간을 당하는 것으로 갚는다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소설로 본다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소설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파키스탄의 펀자브 지방에서 가난한 노동계급의 딸로 태어난 무크타르 마이는 스물여덟 살 때 남동생인 사쿠르가 지체 높은 부족의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단 윤간을 당하게 된다.

파키스탄에서는 그것을 명예 범죄라고 한다. 명예 범죄의 희생양이 된 여자들은 침묵함으로써 영혼을 파괴당한 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거나, 치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와 관심'

하지만 무크타르 마이의 선택은 달랐다. 자신을 집단 윤간한 남성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관습법이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에서 글도 모르는 여성의 투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역경찰의 꾐에 빠져 백지 고소장에 지장을 찍고, 온갖 중상모략과 죽음의 협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크타르 마이는 굴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행해진 부조리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용기 내어 대항했던 것이다.

현재 무크타르 마이는 보상금으로 받은 돈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법정 투쟁을 하는 동안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크타르 마이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보도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국 여성지 '글래머'가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다.

무크타르 마이의 구술을 마리 테레즈 퀴니가 받아써서 출간된 무크타르 마이의 '고백'은 용기와 관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혹자는 무크타르 마이의 용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무지로 인해 백지 고소장에 지장을 찍는 등 무력하게 상황에 휩쓸려 다니기만 했는데, 무슨 용기냐고. 그러나 그녀가 처해 있던 사회의 실상을 보면 침묵 대신에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아예 인권이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크타르 마이가 자존감을 찾게 된 것은 스스로 용기 내어 대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힘들게 싸울 때 혼자만의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준 세계인들의 눈이 있어서 가능했다.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앞장서서 불을 붙이는 용기 있는 자만큼이나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힘을 보태주는 우리 모두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정이〈소설가·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교세관법검철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30 40 주부특별반 •주·야간 성황리 강의중•
10등급 기능직 반 •일반상식,한국사,2과목•
'09년 시험안내
◉시험일자 :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행
◉채용인원 : 국가직 3,200명·지방직 총4,242명 모집
※서울 903, 경기 6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개강 12월15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롬!!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축 목포점 개원 12月18日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하당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개강 1월 2日(주,야) 기본서 첫 진도 시작반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화장이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227-9600
FAX:227-9500
구직 · 운전 · 모집 · 초빙 · 영업 · 모임 · 매입 · 매매 · 임대 · 전세 · 부동산